



# 오클랜드

##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평협회장: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돌-이오팔공  
 선종회장: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팔구-삼삼일일

### 2024년 우리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 (백) 부활 제5주일

2024년 4월 28일 (제2079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TEL 510-553-9434  
 근무시간: 토/일(8am~4pm)

E-mail: standrewoak@gmail.com  
 홈페이지: [WWW.OAKCC.ORG](http://WWW.OAKCC.ORG)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 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심 단체	레지오마리아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7시30분 온라인
성 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시 / 11시
	영어 미사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대건회관)·토 오전 11시
성사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병자성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배성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째 주	

제1독서 사도행전 9,26-31

화답송 시편 22(21),26ㄴ-27.28과 30ㄱㄴ.30ㄷ-32(◎ 26ㄱ 참조)

- ◎ 주님,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또는> ◎ 알렐루야.
-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서원 채우리라.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 찾는 이들은 그분을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 ◎
- 온 세상 땅끝마다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만 민족 모든 가문 그분 앞에 경배하리니, 세상 모든 권세가들 그분께만 경배하고, 흠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 그분께 무릎 꿇으리라. ◎
- 내 영혼 주님 위해 살고, 후손은 그분을 섬기리라. 다가올 세대에게 주님 이야기 전해져, 태어날 백성에게 그 의로움 알리리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음이다. ◎

제2독서 요한1 3,18-24

복음환호송 요한 15, 4. 5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 알렐루야.

복음 요한 15,1-8

영성체송 요한 15,1.5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성가]	8시	입당	130	봉헌	340	성체	175	파견	16
	11시	입당	130	봉헌	340	성체	151	파견	16
부활5주일	4월 28일(주일)		4월30일(화)	5월 1일(수)	5월 2(목)	5월 3(금)	5월 4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미경 말가리다	하상회	정미경 말가리다	황혜정 데레사	이명련 파트리샤	이명련 파트리샤	구리아		
독서	이명국 바오로 김영선 안젤라	하상회	이명국 바오로	윤춘주 세레나	이기자 요안나	주정희 마리아	구리아		
제의방	이선미 에스터	허홍숙 세실리아	윤춘주 세레나	윤춘주 세레나	장희숙 루시아	허홍숙 세실리아	허홍숙 세실리아		

■ **부활시기 삼중기도**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기도합니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성모 성월**

-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교회는 매년 5월을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를 기억하고 성모님을 공경하고 성모님의 모범에 따라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은총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고합니다.

- 매 미사 전에 매일미사 책 178쪽에 있는 성모 성월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 주임 신부님 개인 사정으로 오늘 미사는 예수회 박영수 테오도르 신부님이 집전해드립니다.

■ 오늘 교중미사 전례곡은 어울리팀에서 합니다.

■ **성모의 날(밤) 행사**

- 미사와 함께하는 성모의 날 행사
- 일시: 5월 4일(토), 오전 11시, 성당
- 제단체 및 구역에서 꽃봉헌이 있습니다.

■ **세례식 및 첫영성체**

- 일시 : 5월 5일(일), 교중미사 중
- 세례식: 한혜성 베드로, 첫영성체: 김동영 엘리사벳

■ **5월 성경 통독**

- 5월 바오로 서간(읽기분량 : 코린토 전: 7,1-11,34)

■ **어린이 영어미사** - 일시 : 5월 4일(토) 오후 3시

■ **공동체 기도 지향**

박영자 마리아, 박영자 클라라, 조상희 마리아, 정화봉 로사, 신정열 올리엠타, 정연중 비오, 최라파엘, 전옥분 크리스티나, 홍윤표 베드로, 황정숙 말피나, 권주선 다니엘, 천혜수 아네스, 브루스아론조 발바라, 신공진 요한, 박숙모 아네스, 박인규 시몬, 손한석 가브리엘, 김정희 올리엠타, 이은자 마트로나, 이영아 아나스타시아, 임희숙 세트리다, 박진영 베드로, 박영림,

■ **밥나눔 안내**

- 오늘 밥나눔 메뉴: 떡만둣국, 닭곰탕, 배추된장국, 아보카도계란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봉어빵, 커피/음료
- 5월부터 밥나눔 봉사 회장 송성숙 아네스 자매님이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밥나눔봉사 임시회장에 김순희 클라라 자매님을 임명했습니다.

■ **춘천교구 서범석 도미니코 신부님**

- 5월 10일까지 본당에 머물다 가십니다.

■ **모임 및 회의**

- 울뜨레아 : 4/28(일) 1:00 교육관 107호
- 사목회 : 5/5(일) 1:40 교육관 106호
- 구역장회의 : 5/5(일) 미사후 교육관 106호

■ **안나요아킴회 야유회**

- 5월 18일(토), 오전 11시 미사 후, 사제관 들

■ **주일학교 방학**

- 4월 28일(일)에 주일학교가 종강을 합니다.
- 5월부터 9월까지 주일학교가 방학을 합니다.

■ **안나요아킴 매월 라인댄스 일정**

- 셋째 주, 넷째 주 주일 밥나눔 이후.

■ **어르신 휴대전화 사용 문의** - 친교실 본당청년/하상회

■ **성당 내 안전 유의**

- ① 성당 내 운전 5마일 이하
- ② 성당/식탁에 앉고 일어날 때 조심
- ③ 성당 주방은 봉사자 외에 출입금지
- ④ 성당 계단에 오르고 내릴 때 주의

■ **주 미주 대한민국 명예대사 위촉 추천 서명**

- 독립운동가 이대위님을 주미 대한민국 명예 대사 위촉 청원 서명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서명해주시면 됩니다. 서명은 4월 28일(일)까지 받습니다.

■ **함께 해주세요**

- 본당에는 청소 용역이 없습니다.
- 각 단체 모임이나 구역 모임 후에 나오는 쓰레기를 치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화장실도 깨끗이 사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본당 청소 (매주 토 오후 12시)**

-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파일오)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본당에서 봉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실버구역 점심을 준비해준 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야고보 (5/3) : 이재우, 함주성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 부활삼종기도는 원래 성모찬송이다?

### 원래와 중요성

교회는 성모 마리아를 신앙의 대상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마리아 공경은 이미 2세기부터 시작되었으며 4~5세기경 동방교회에서 마리아의 축일이 제정돼 전례적인 공경이 시작됐다.

특히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임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이를 선언함으로써 마리아에 대한 공경이 널리 보급되고 권장됐다. 성모 마리아와 관련된 축일은 모두 600여 가지 이상이 되며 그 중에는 온 세계 교회가 다함께 거행하는 축일과 일부 지방 또는 교구나 수도단체에서만 거행하는 축일이 있다. 아울러 공식적인 교회의 신심은 주로 미사전례와 성무일도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교회는 이처럼 전례적이고 공적인 공경외에도 개인의 공경과 신심 행위를 승인하고 권장해왔다. 목주 기도나 스카폴라, 기적의 메달 등의 개인적인 신심들이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돼왔다.

성모성월은 먼저 동방교회에서 기념되기 시작했다. 이집트 중심의 콥틱 전례에서 고유한 성모성월을 지내기 시작한 것은 11세기에 와서였다. 콥틱 전례력에서 키악(Kiahk)이라는 네 번째 달은 12월 10일부터 1월 8일에 해당하는데 그 중심은 성탄이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기념한 성모성월은 예수 성탄과 그 모친을 찬미하기 위한 것이었고 신자들은 마리아와 관련된 기도서로 매일 기도를 바쳤다.

13세기부터 8월을 성모성월로 정한 비잔틴 전례는 8월 15일을 성모 안식 대축일로 기념했는데 1453년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으로 더 발전하지는 못했다.

서방교회에서는 중세부터 성모성월이 시작됐다. 5월을 성모 마리아의 달로 봉헌하는 관습은 13세기부터 시작됐고 5월과 성모 마리아를 처음으로 연결시킨 사람은 카스티야의 왕 알폰소 10세였다.

로마에서는 성 필립보 네리(1515~ 1595)에 의해 5월을 미약하게나마 성모성월로 지내지기 시작했는데 네리는 젊은이들에게 한 달 동안 성모 마리아에게 꽃다발을 바치거나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선행으로 마리아를 공경하도록 했다.

17세기 말엽 마리아 운동과 함께 5월이 성모성월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1677년 피렌체 부근의 피에솔레 도미니코회 수련원에서 특별한 모임이 생겼고 이 단체는 5월을 성모에게 봉헌하고 신심을 고취했다. 1701년부터는 한 달 동안 매일 축제를 지냈는데 이때 성모호칭기도를 노래로 바치고 마리아에게 장미화관을 바쳤다.

성모성월 신심행사는 18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돼 프랑스, 스페인에 이어 19세기초 벨기에와 스위스, 19세기 중엽에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도 거행됐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성모성월은 예수회의 디오니시가 1725년 베로나에서 「마리아 성월」을 출판하면서 시작돼 로마, 밀라노 등으로 확산됐다. 이 책에서는 집과 일터에서 성모성월에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제시돼 있었다.

19세기 중엽에 들어 유럽 전역과 아프리카까지 성모성월이 확산됐고 교황 비오 7세(1800~1823)의 성년 대사 선포와 함께 널리 퍼지게 됐다. 1854년 12월 8일 교황 비오 9세가 원죄 없으신 잉태 교리를 선포한 뒤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은 절정에 달했고 성모성월 행사는 공적으로 장엄하게 거행됐다.

### 의의와 신자들의 자세

성모성월 신심은 역대 교황들에 의해 그 중요성이 여러 차례 강조돼왔다.

성모성월을 기념하고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신 신앙의 모범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한편 하느님의 은총을 성모 마리아를 통해 전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전세계의 가톨릭 신자들은 매년 이맘때면 성모성월을 기념하는 예절을 특별히 거행한다. 그럼으로써 성모의 모범을 따라 선행과 기도로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은총을 얻어주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성모성월신심을 위해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규정한 전례 예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각 본당이나 가정마다 있는 성모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말씀의 전례 양식을 빌려 재구성한 성모의 밤 등 각종 행사를 거행하고 목주 기도를 다 함께 바치는 등의 기도 모임을 갖곤 한다.

교황 비오 12세(1939~1958)는 교서를 통해 『성모성월 신심이 엄격한 의미에서는 전례에 속하진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전례적 예배행위로 간주할 만한 신심』이라고 강조했다. 교황 바오로 6세도 마리아 신심운동이 기적이거나 발현에 치우치지 말고 전례적인 공경 안에서 바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1965년에 발표한 교서에서 『성모성월은 전세계 신자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달』이라며 『교회 공동체와 개인이나 가정 공동체는 이 기간 동안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마리아에게 드리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마리아의 송고한 사랑을 찬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톨릭신문 2021.05.]

